

Photonics Special |

LED조명산업 꽃을 피우다

한국광산업진흥회 LED보급연구개발지원부
LED보급지원팀장 송원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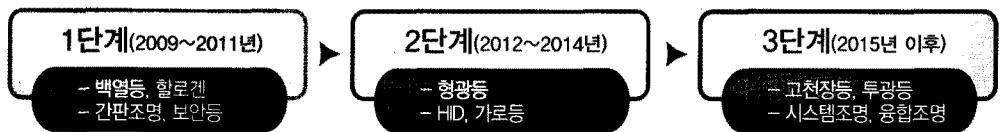
공공 및 민간시장 LED조명 확대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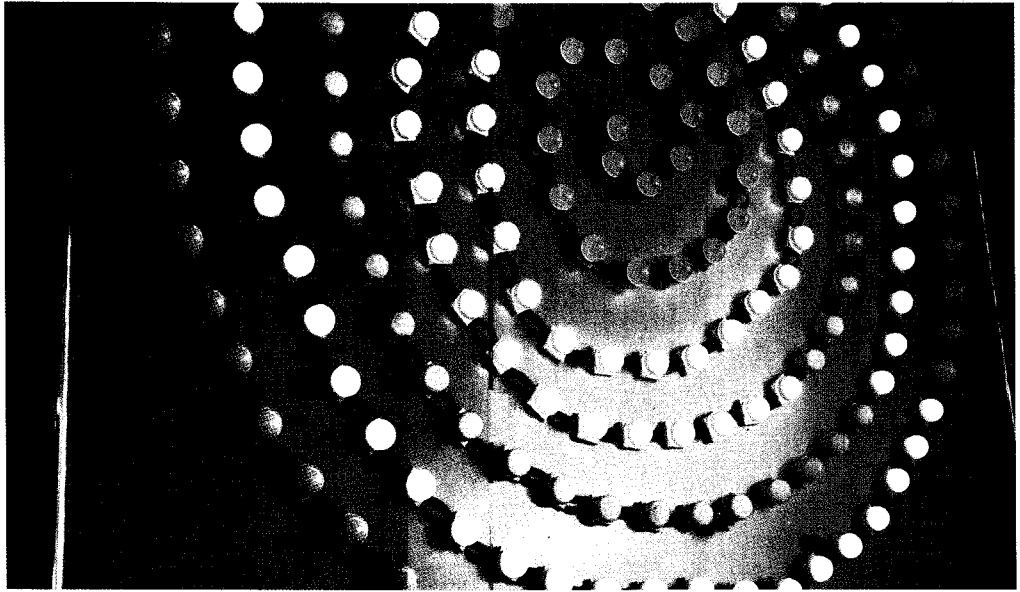
LED조명에 대한 인식 및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정부에서도 LED조명 보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LED 조명 2060계획과 조명·융합 新시장 선도를 통해 LED산업 제 2도약을 달성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시장창출을 위해 그간 설치자금 보조금을 현재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 지원하고,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보급확산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LED조명 민간보조금 지원으로 서민층과 영세성으로 자발적 교체가 어려운 민간 대규모 수요처를 대상으로 2015년까지 LED조명 보조금을 지원(2011 ~ 2015년간 1,000억원)하고, 재래시장, 소상공인 광고간판, 양계장, 화훼농가, 집어등 등 특수 수요처에 대해 백열전구, 형광등을 교체 지원하는 등 민간부문의 시장 확대도 본격화 될 예정이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20
누적보급률(%)	2.5	6.0	13.3	18.5	24.3	30.0	60.0
연도별보급율(%p)	-	3.5	7.3	5.2	5.8	8.5	30.0
공공기관 보급률(%)	8	10	30	40	50	6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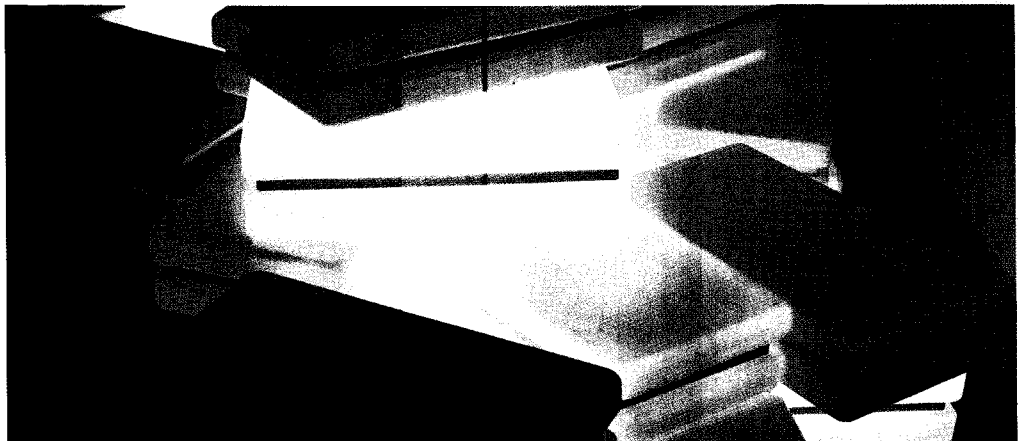



하지만, 대기업 진출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수직계열화는 물론 본격적인 단가하락을 주도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에게는 좋은 기회이지만, 중소 LED조명기업들의 경쟁력은 날로 낮아질 수 있다는 이면이 있다.

특히, 중소 LED조명기업들의 약점으로는 주문생산식 소규모 생산으로 인해 양산 기술 저하와 다양한 제품 보유에 의한 제품의 평이성과 차별성 부재, LED전문인력 수급의 애로에 따른 생산력 저하 및 연구개발의 지속성 부족 등이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중소기업형 LED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현실로 다가와 각종 내·외부 요인으로 인해, 중견 LED기업들의 지속적인 매출 부진 악화에 따라 대기업으로의 M&A, 인수합병, 부도, 실적부진 및 경영악화 등 LED산업의 불안한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우선 중소기업자간 100% 경쟁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일반조명과 달리, LED조명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 참여 제한을 50%로 예외조항을 허용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일반조명시장과 마찬가지로 LED조명의 경우에도 100%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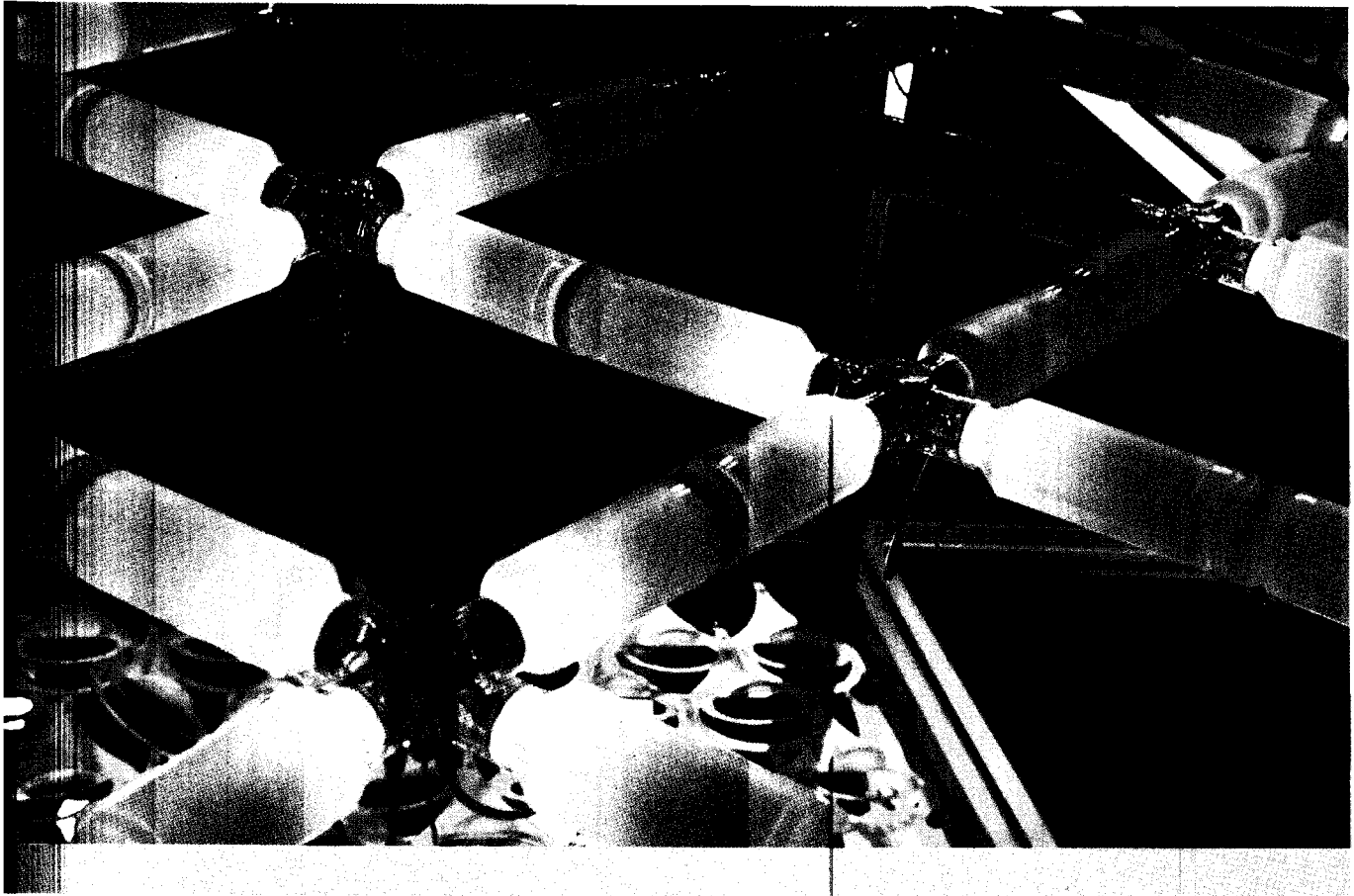


해외시장 진출 확대

이러한 최근의 단가하락 및 대중기업간 경쟁체계의 심화 등의 문제로 최근 중소 LED기업들은 해외 진출로 마케팅 전략을 점차 바꿔나가는 양상이며, 특히 기존 거점국(일본, 미국, 유럽 등)은 물론, 신흥국(러시아·CIS지역, 남미 등)까지 확대되고 있다.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허영호, LG이노텍 대표이사)에서는 이러한 애로점을 해소코자, 최근 몇 년간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회원사를 지원하여 최근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남미·중동·호주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진흥회와 러시아 연방정부 에너지청간에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LED조명산업 발전(LED 대규모 프로젝트 공동수행 등) 및 LED 표준·인증, LED 기술·인력·정보 교류 등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고, 지난 2월, 한국광산업진흥회는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마케팅 국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한-러 LED융합기술 공동세미나 및 러시아 현지 무역사절단 파견(모스크바, 스타그라폴주)하여 한국광산업진흥회 회원사 3개사가 LED조명제품



공급계약 3,500만달러(약 400억원)을 하였고, 현지 조립양산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향후 러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회원사들에게는 현지법인을 이용한 현지화를 도모하는데 큰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러시아는 물론, CIS지역으로의 확대 진출을 위해 회원사를 중심으로 LED수출컨소시엄을 10개사 구성하여, 7월 1일부터 14일까지, 모스크바,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등 4개국에서 현지 수출상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현지 100여명의 바이어와 상담을 통해 수출가능성을 타진하고, 오는 2011국제광산업전시회(10.4 ~ 10.6/김대중컨벤션센터)에 10개사의 수출컨소시엄 공동관을 구성하여 전시회 기간중 핵심 바이어 20여 명을 광주광역시로 초청하여 추가적인 수출계약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또한, 올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된 미국지역 LED협력사업은 LED 해외대규모프로젝트 수주지원이라는 큰 화두를 몰고 있다.

최근 CBS방송국, 워너브러더스, 코닥극장, LA컨벤션센터·Staple센터 실내경기장 내 LED조명교체 및 보급형 LED일반

조명의 유통 공급권에 한국제품의 사용을 적극 검토중인 미국 측을 상대로 물밑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스펙과 조건 및 낮은 단가요구로 유명한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조만간 LED조명엔진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대기업의 조명엔진 대량생산 및 중소기업의 완제품에 적용되는 구조를 통해 향후 LED조명산업의 재편이 예상되지만, 이는 LED조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이렇듯 국내·외로 LED조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LED 회원사들의 경쟁력 강화 및 마케팅을 위해 더욱 확대 지원하는 것만이 LED조명에 비로소 제대로 활짝 꽃을 피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